

전 남

# 목포항만 개발사업 가속

## 신항 준설토 투기장·남항 부두 등 을 1234억원 투입 공사 4건 시작

그동안 주춤했던 목포항만 개발사업이 가속화된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항을 서남권 중추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능별 특성에 맞게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목포북항 배후부지 등 항만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항만청은 올해 1234억원을 투입해 ▲목포신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 ▲목포신항 소형어선 접안시설 ▲북항 친수 문화공간 조성 ▲남항 관광 선부두 공사 등 4건을 시작한다.

목포신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는 총 사업비 485억원을 투입해 호안 1588m를 축조해 면적 43만1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목포항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고하도 목포신항에 건설된다.

또한 목포신항 소형어선 접안시설 공사 사업비 182억원과 북항 친수문화공간 조성공사 158억원,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목포내항 및 삼학도에 있는 관공선 등을 접안하기 위한 계류시설(746m)을 설치하는 남항 관광

선 등 계류시설 공사에 4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이 준공되면 소형어선 접안시설 확충으로 항내 질서유지 및 항행 안전성을 확보와 관광객 및 시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데크광장, 노을광장, 이벤트광장 등 북항내 친수문화 공간조성으로 쾌적한 항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 이재백 항만공사과장은 “지역에 맞는 기능별 항만개발을 통해 항만이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항내 이용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 환경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벼품질 선정기준, 多收性서 수명 오래가는 품종으로 바뀌야

## 종자원 전남지원 종자협의회 호평·새누리 등 발아율 월등

지난해 봄 정부 보급종 벼씨의 불량 발아 여파에 따라 고품질 벼품질 선정기준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지난 26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올해 벼종자 생산을 위한 광주·전남 지역종자 협의회를 열고 “고품질 쌀 품종선택 방향을 기존 호평벼 등 다수성

(多收性) 품종에서 종자의 수명이 오래가는 품종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남 쌀의 밥맛이 오래 유지되는 유통의 혁신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이 2010년산 벼(원종) 품종별 발아율 변화를 조사한 결과 품종에 따라 발아율 저하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후 종자 발아율은 새누리 품종이 가장 높았고 호평·일미 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호평벼를 비롯한 다수성 품종의 발아율은 낮게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호평·은누리·운광·동진2호 품종의 경우 2011년 1월 조사에서는

86~87%의 발아율을 보였으나, 1년 후인 1월 조사에서는 15%(호평)~39%(동진2호)로 나타났다.

반면 호평과 새누리 품종은 2011년 1월 조사에서 95%, 92%의 발아율을 보였고, 1월 조사에서도 71%, 83%의 발아율을 보였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상온상태에서 종자수명이 오래가는 품종을 선정하면 저온저장을 하지 않고 전남 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고품질 쌀 선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한옥 체험하세요** 이주희망 도시민이 머무르면서 농·어촌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순천시 농어촌 한옥 체험관'이 지난 27일 송광 덕동마을에 준공됐다. 한옥체험관은 부지 2350㎡에 연면적 85.5㎡ 1동으로 총사업비 1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 미달 706명 서명 제출 서기동 구례군수 소환 투표 새국면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9일 구례군수 주민소환 추진본부 측에 따르면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환투표 실시요건인 구례군 전체 투표권자 2만2918명의 15%인 3438명보다 222명이 미달 된다는 보정 통보를 해왔음에 따라 다시 70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구례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례 선관위는 사실확인 절차를 마친 후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사실확인 결과 보정이 받아들여지면 소명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에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정서투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소환투표는 무산된다.

주민소환본부 측은 “구례 선관위가 상당수의 정상적인 서명자들을 무효처리 했다”고 주장하며, “사실 여부에 따라 선관위의 공신력이 실추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구례 선관위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주민소환 투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 초중고 학생부장·교사·군 관계자 등 참석 해남경찰서 학교폭력 근절 간담회

해남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최근 해남교육지원청과 청소년교육지원센터장, 관내 초·중·고 학생부장, 교사,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합동 대응방안과 비행학생 집중 선도관리 방법, 유관기관별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해남경찰은 ‘스쿨 폴(s-

chool pol)제도를 운영하면서 교내 학생안전 강화구역 순찰과 함께 학생 지도교사와 비행학생간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동준 서장은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할 문제”라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선도과 보호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무안읍 지반침하 보강공사 불법 하도급 수사 착수

무안경찰이 불법 하도급 계약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광주일보 2012년 1월 27일 11면)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무안경찰은 “무안군이 발주한 무안읍 재해위험 교촌·성남지구 지반침하 보강공사와 관련, 특정업체와 불법 하도급 공사계약을 하는 과정과 공사비 증액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대상지 추가확대로 총 9억 2000여만 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불법하도급 계약과정에서 벌어진 지역 토착세력과 정치권, 지역 언론인 등의 로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안읍 지반침하 보강공사사업은 ‘보링 그라우팅 공사’ 전문건설



무안군이 발주한 교촌·성남지구 지반침하 보강공사 현장. 명속에 물과 배합한 시멘트 원액(벤토나이트)을 주입해 지반을 굳힌다.

업체인 서울 T업체(교촌지구)와 목포 Y토건(성남지구)이 낙찰받았으나 T사와 Y토건은 다시 같은 업체의 무안 B토건에 하도급을 주었다. 관련법

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비료업체 선정 농가에 맡겨도 말썽

### 함평지역 마을 특성이 좌지우지...업체 과잉경쟁 문제도

함평지역에서 유기질비료 공급 보조사업이 제품 품질보다는 몇몇 특정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양질의 유기질비료 및 퇴비를 공급하기 위해 올해 농림부 지침에 의해 농가에서 직접 선호하는 비료 및 퇴비를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품의 농업인들이 업체신청을 하다 보니 제품의 품질보다는 몇몇 주위의 특정인들에 의해 업체가 결정되는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실제 최근 A지역에서는 공급신청서에 특정업체의 제품과 등급이 미리 인쇄돼 농가에 배부돼 말썽이 일자

농협에서 이를 수거해 폐기하고 농가에서 자필로 재신청하는 등 농가의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지역에서는 농가의 자발적 신청이 아닌 마을대표들이 나서 업체를 선정했다는 소문들이 무성할 실정이다.

이처럼 농협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올해는 농가의 개별구매 방식으로 바뀌면서 업체 관계자들이 마을대표를 접촉해 제품판매에 나서는 등 자칫 업체들의 과잉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에 대해 농가의 불편함을 줄이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 공급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강구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민 최모씨는 “올해는 비료 신청시 농가가 직접 희망업체와 수량 등을 직접 기재하고 문서에 서명하는 등 예전 방식에 비해 신청절차가 복잡했다”며 “특정업체에서 유사한 신청서를 만들어 자기네 제품이 농협에서 선정된 듯 인쇄해 유포한 것은 농가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올해 퇴비공급업체 선정 방식은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정부의 퇴비 품질등급제를 정착시키고 등급별 지원 차등 폭을 확대해 우수업체는 우대하고 제조과정이나 퇴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패널티를 주는 등 정부의 강도높은 정책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화기자 hwang@

# 이태리가구 쇼핑몰

## www.100424.com

(천사24닷컴)

### 신상품 입점 : 100~200만원대 식탁 거실TV장

## 홍스케이스

홍은 수입원/직수입 → 도매가 판매  
이태리가구 빌딩 400평 매장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동구청-전남여고사이

문화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

# 히딩크관광호텔

www.hiddinkhotel.com

문화수도광주!  
중심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 히딩크호텔에서  
당신을 VIP로 모십니다.

- 주요시설 - 객실 -** 65개의 객실, 낭만적인 분위기로 보석을 세팅하듯 소중히 모시는 히딩크호텔 웨딩홀, 최신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품격있는 연회장
- 부대시설** 스카이라운지, 커피숍, 정통일식레스토랑, 옥사우나



이태리가구 관광호텔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60-1번지  
Tel.227-8500/Fax.227-2159